



ALLANT TRIO (알란트 트리오)

“나는 아무리 기진맥진하고 싶증난 청중들일지라도 이 그룹(알란트 트리오)의 연주를 들어보라고 도전하겠다. 오늘 밤 알란트 트리오 연주에서는 잠시의 지루한 순간조차도 고압전류의 기운이 흘렀기 때문이다.” **로리엔 쉬라이드, 뉴욕 콘서트 리뷰**

“한국음악재단이 주최한 이번 공연에서 알란트 피아노 트리오는 ... 250 석을 가득 채운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최희은 기자, 뉴욕 한국일보**

“개개인의 뛰어난 연주 기량을 바탕으로 앙상블을 이룬 알란트 트리오... 그들은 [베토벤 트리플 협주곡]을 연주할 때에 기쁨과 환호의 해석을 통해 곡의 매력을 발산시켰고 그 결과로 청중들은 열광적인 브라보와 기립 박수로 응답하였다. **제임스 코터, 타임스 헤럴드 레코드**

알란트 트리오 세 명의 (피아노-남효경, 바이올린-박지현, 첼로-임서경) 젊고 열정적인 음악가들이 모인 앙상블로 지난 2010년도 뉴욕의 줄리아드 음대에 재학 중 만들어진 팀으로써 세계적으로 유명한 앙상블 코치들 (토비 애플, 로한 다실바, 조나단 펠드만 니콜라스 만, 비비안 와일러스타인, 클라이브 그린스미스, 마틴 비버)에게 사사하였다. 급속한 속도로 성장하는 젊은 실내악 앙상블들 중에 하나인 이들은 2013년에 남가주에서 열린 베벌리 힐스 오디션에 입상하고 그밖에 2015년 제 7회 호주 멜버른 국제 실내악 대회, 2013년 제 2회 독일 함부르크 국제 실내악 대회, 2011년 제 6회 노르웨이 트론헤임 국제 실내악 대회 준결승 등 다수의 권위 있는 국제 실내악 대회에 초청을 받아 경연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소니 클래식을 통해 그들의 첫번째 앨범 ‘이그니션’을 발매하였고 트리오의 연주 실황은 호주의 유일한 클래식 국영 방송인 ABC FM에서도 생방송 되었다. 지난 2014년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 음악제에 초청받아 성남 시향과 베토벤 트리플 협연을 계기로 2015년 여름에는 미국 동부의 버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뉴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초청돼 연주 하는 등 활발한 협연 활동도 펼쳤다. 2014년도 한국음악재단이 주최한 카네기 와일 리사이틀 홀에서의 뉴욕 데뷔를 성황리에 치렀고 그 외에도 뉴저지의 사우스 오렌지 예술 회관과 그밖의 많은 홀에서 50회가 넘는 연주를 하며 무대에서는 곳마다 많은 관객들의 기립박수와 호응을 얻어냈다. 다수의 챔버 음악제에도 초청을 받은 트리오는 지난 2014년 여름 미국의 유서 깊은 놀록 음악제에 참여하였고 이듬해인 2015년 여름에는 정식 아티스트로 초청을 받아 겔라 콘서트를 성황리에 치렀다. 그 외에도 2013년 예후디 메뉴힌 챔버 음악제에 초청돼 많은 연주회와 마스터 클래스에 참여하였고 지난 2011년 캐나다 밴프 센터에서 개최하는 챔버 레지던시 프로그램에도 뽑혀 조엘 크로스닉, 제프 너털, 제이미 파커, 마크 스타인버그, 그리고 도날드 와일러스타인에게 코칭 및 연주 기회를 가지었다.

그들의 음악에 대한 열정은 무대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각자의 제자 양성과 음악 교육에까지 뚜렷한 목표와 사명을 가지고 임하는 모습을 보이며 클래식 음악 팬들의 세대차이를 좁히고 연결하는 노력과 리더쉽 또한 발휘하고 있다. 2013년 줄리아드 음대의 조나단 마드리가노 기업 그랜트를 수상하며 알란트 트리오는 그들만의 음악교육적 신념을 담은 Shall We Play 프로젝트를 실행하였고 총 8 곡에 달하는 초·중급 실내악 학생들을 위한 악보를 출판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미국 사우스 케롤라이나 주의 비영리 단체인 Joye in Aiken에 음악교육 아티스트로 초청을 받아 그 지역의 공립 중학교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에서 마스터 클래스와 콘서트를 열었다. 그 밖에도 호주 멜버른 빅토리아 대학의 음악 예비학교와 뉴욕의 제네바 컨서바토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예후디 메뉴힌 챔버 음악제에서 학생들로 구성된 트리오 앙상블들에게 코칭을 하였고 남가주 웨스트 토렌스 공립 고등학교와 줄리아드 음대의 피아노 토픽스 클래스에 특별 초빙되어 많은 학생들에게 챔버 그룹을 형성하고 연주하는 노하우를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더 나아가서는 노인회관과 병원 그리고 노숙자 시설처럼 소외된 청중들을 찾아가 무료로 연주를 하는 등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역할에 책임을 가진 그룹이다.